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어릴 때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의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 크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의지할 것이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배우자를 의지하고 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하면 많은 재물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 부족한 면을 많은 재력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권력이나 능력을 키우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 드린 이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또한 많은 재물, 건강한 체력, 권력 등은 우리들에게 잠시 동안의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사탄 마귀는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도 받고 이런 저런 검사도 합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병명을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수술을 하든 아니면 약을 먹든 재활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진단하시기를 모든 자연인은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단이십니다. 그래서 그 처방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눈 앞에 불을 던져 놓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급할수록 눈 앞의 불을 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극심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쌓여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편의 시편에서 무려 6번이나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많은 보화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았고, 자신이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군대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을 올바르게 알았고 그 분을 의지한 것입니다.

벧전 3:14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또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믿었던 지인이 배신을 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5:12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전에 독립군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때 독립군들에게 일본군보다도 더 위협

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 밀정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일본 군인보다 내 주위에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더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였는지는 몰라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지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 뒤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